[유아 사교육 해법찾기①]

득보다 실 많은 '유아 사교육'

2011.04.22 | 최정은_새사연 연구원 | jechoi@saesayon.org

목 차

1. 들어가기
2. 사교육의 폐단...유아 발달에 '직격탄'
3. 유아 사교육비 부담, 초중고생 못지않아
4. 유아 '특별활동' 역시 또 하나의 '사교육'
5. 조기교육과 맞닿은 유아 사교육, 부모 탓만?
6. 득보다 실 많은 유아 사교육, 해법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http://saesayon.org

요약

마음껏 뛰어놀아야할 유아들이 취학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사교육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최근의 연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여러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결과를 보더라도, 사교육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부모들의 투자행위로 볼 수 있다. 학교 이외의 다른 교육활동이 아이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나아가 학벌중심의 사회에서 좋은 대학은 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너나할 것 없이' 사교육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정작 아이들의 심신이 병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낮다. 유아기는 어느 연령대보다도 신체, 정신, 인지 등 모든 면에서 고른 성장이 중요한 시기이다. 때문에 우리의 유아교육은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지만 조기교육 열풍과 사교육 시장의 경쟁이 유아의 전인교육을 해치고 있다.

사교육의 출발선이 유아, 심지어 영아로 내려와 있는 현실에서 유아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사교육이 아이들에게 약이 되기보다는 독이 되고 있다는 초등학생 대상의 연구결과는 유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하다. 사교육의 효과 역시 과장된 측면이 크다. 초등학생일 경우 사교육 효과는 크지만, 중고등학교로 올라갈 경우 사교육보다는 학업에 대한 태도나 적성이 성적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 유아기에 형성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생활태도나, 인성교육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결과다.

우리의 사교육은 순기능보다는 현실 안에서 많은 모순을 낳고 있다. 학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유아들이 받을 스트레스, 정규유아교육의 파행적인 운영, 자유활동의 기회 박탈, 사교육비 증가와 가계 부담 가중, 사회 계층간 갈등 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다.

이제는 태어나면 사교육 기관에 등록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다. 태어나면서 사교육을 가장 먼저 접하기 때문일 수 있다. 도를 넘은 사교육이 유아의 전인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는 만큼, 이의 문제를 되짚고 해법을 찾아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본문

1. 들어가기

대책 없이 치솟는 물가에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사교육비 걱정에 골머리를 앓는다. 기본 생활비는 줄이고 줄여 아끼더라도 사교육비는 초중고생의 절대 다수가 받는 현실에서 가계가 어렵다고 단칼에 자르기가 쉽지 않다. 혹여 남들 다 하는 사교육, 우리 아이만 안 시켜 뒤쳐질까 전전긍긍하는 부모들로서는 어려운 선택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사교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어떤 이들은 미래 인구론을 인용하며 한가한 해법을 내놓기도 한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니 향후 경쟁이 느슨해지면서 사교육 걱정도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논리다(<연합뉴스> 2011.3.30). 과연 인구가 줄어든다고 아이들이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해방될 수 있고, 사교육의 덫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사교육 문제는 단순히 공급과 수요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결과를 보더라도, 사교육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부모들의 투자행위일 수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0.5.11). 학교 이외의 다른 교육활동이 아이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있다. 나아가 학벌중심의 사회에서 좋은 대학은 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너나할 것 없이' 사교육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정작 아이들의 심신이 병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낮다. 최근 카이스트 학생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성적지상주의와 경쟁교육의 폐단이 학생들의 숨통을 조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사교육을 많이 받는 아이들은 우울증 정도나 공격적인 성향이 크다는 정신과 교수의 최근 연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치열하고 융통성 없는 학원 분위기 때문에 친구들과 자율적인 관계를 갖기 어렵고 어른들과 소통도 어려워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진단이다(<국민일보> 2011.4.4).

그런데도 초중고등 학생들은 오랜 시간 학습 위주의 교육에 시달리고, 유아기마저 초등학교 준비기로 보내야 할 판이다. 유아기의 사교육 참여율이 어느 연령보다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분석" 결과에 의하면, 유아(만3세~5세)의 99.8%가 학습지, 방문 과외 등 개별학습과 영어, 예

체능 학원 등에서 사교육을 받고 있을 정도다(한국교육개발원, 2010.12). 유아의 사교육의 참여율이 초등학생(86.8%), 중학생(72.2%), 고교생(61.1%) 수준(통계청, 2011.2.15)을 뛰어넘었다.

유아기는 어느 연령대보다도 신체, 정신, 인지 등 모든 면에서 고른 성장이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조기교육 열풍과 사교육 시장의 경쟁이 유아의 전인교육을 해치고 있다. 도를 넘은 유아 사교육의 실태를 되짚고 해법을 찾아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 사교육의 폐단...유아 발달에 '직격탄'

사교육의 출발선이 유아, 심지어 영아로 내려와 있는 현실에서 유아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우리의 사교육은 순기능보다는 현실 안에서 많은 모순을 낳고 있다. 사교육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넓게는 공교육 이외의 다양한 교육 활동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교육은 학교 교육을 보완, 보충해 학력을 향상시켜주고 학생 개인의 소질을 계발해주는 순기능을 발휘하는 면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한국교육개발원, 2007.12).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사교육은 유아의 전인적인 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다.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도 유아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특별활동이 강조되면서 정규교육 과정의 운영이 깨지고 있다. 발달 연령에 맞게 만들어진 정규과정이 외부 전문 강사와 특기교육이 시행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아기는 직접 체험하고 탐색하며 자기만의 재미를 찾는 시기이지만, 사교육으로 인해 중요한 교육활동을 못하게 된다. 아이들은 발달 연령에 맞게 놀거나 바깥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배우는 기회는 중요하다. 하지만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주입식 교육에 어린 나이부터 길들여지고 있다. 대신 바깥놀이나 체험학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점점 더 듣기 어려워지는 이유다.

무엇보다도 학습 중심의 사교육은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특히 유아기는 기본적인 생활태도나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놀이나 체험을 통해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 만큼 개별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는 보육

과 교육과정 중요하다. 하지만 선행학습이 강조되다 보면, 오히려 유아교육의 기본 철학이 외면 받을 수 있다. 사교육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의식과 긴장감이 아이들의 스트레스로 연결되어 아이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국민일보> 2011.4.4).

또한 사교육은 전적으로 부모의 소득 수준에 의존하고 있어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사회적 위화감마저 불러온다. 사교육에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 대학진학의 학력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육기회의 접근에서부터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 사교육을 시킬 수 없는 가정은 사회 위화감마저 느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교육비가 가계에 주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 유아와 초중고생을 포함한 전국 사교육비는 가구당 72만원으로, 월 소득 대비 19.4% 비중을 차지해 부담을 키우고 있다. 유아 한 명당 가구의 월 사교육비는 38만5천원으로 조사되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0).

3. 유아 사교육비 부담, 초중고생 못지않아

무엇보다도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지면 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유아 한 명에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초중고생 못지않다. 유아의 교육비 부담 때문에 저출산이 심각하다는데 조사 가구 전체의 93.1%가 동의하고 있기도 하다(한국교육개발원, 2010). 아이들 교육이라면 아낌없이 투자하는 한국적 특성을 사교육 마케팅이 파고들면서, 유아의 사교육 시장의 전체 규모도 점점 더 비대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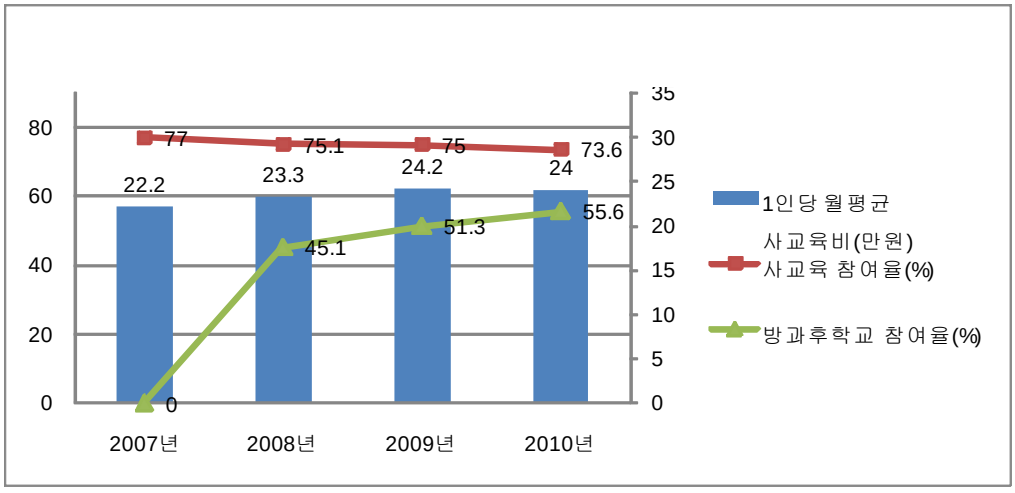
보통은 유아의 사교육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안의 특별활동과 시설 밖의 '과외사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어떤 조사에서는 유아교육시설 안의 특별활동뿐 아니라 유치원 교육 과정도 사교육으로 포함하기도 한다.

최근에 이뤄진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특별활동비, 학원비, 개별교육비, 기타 교육비 등을 합한 사교육비는 가구별로 월평균 16만3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 유아교육기관에는 가구별 월평균 교육비는 32만8천원을 지출하고 것으로,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 교육비는 월평균 33만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 보육시설 교육비로 월평균 29만5천원을 지출하고 있다. 유치원과 사교육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월평균 지출액이 약 4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시설과 사교육을 함께 받는 경우는 월평균 약 38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유치원만, 보육시설만, 사교육만 이용할 경우는 월평균

23~25만원을 지출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0.12).

유아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 부담은 취학 아동에 지출하는 비용 이상일 수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사교육비는 월평균 24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1 참고). 유치원이든, 보육시설이든, 사교육이든 하나만 이용할 경우 가구당 월평균 23~25만원이 드는 것과 비교하면, 소요 비용은 비슷하다. 초중생의 공교육은 무상으로 이뤄지는 반면, 유아들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비와 교육비를 차등적으로 지원받고 있어, 보육비와 사교육비를 합할 경우 오히려 초중학교 자녀들보다 가계 부담 정도는 더 클 수 있다. 이렇듯 유아기도 사교육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면서,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더 커지고 있다.

그림1. 초중고생 사교육 실태(2010년)



*출처: 통계청와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사교육비조사 결과"(2011.2.15)

유아의 사교육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유아 전체의 사교육비 규모를 추정한 결과, 유아의 총교육비는 7416억원(유치원 이용 유아 총교육비는 3887억원, 보육시설 이용 유아 총교육비 3127억원)이고, 총 사교육비는 2806억원(유치원 이용 유아 사교육비는 1425억원, 보육시설 이용 유아의 사교육비 979억원), 기타 교육비는 4147억원이다. 유아의 총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칠 경우, 1조원이 넘는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0.12).

사교육비의 개념과 범위에 따라 시장의 전체 규모는 다르겠지만, 밝혀진 사실은 사교육비 부담이 취학 전 유아기까지 연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4. 유아 '특별활동' 역시 또 하나의 '사교육'

일찍부터 초등학교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모의 불안감이 아이들의 놀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유아기는 대학입시의 출발선으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전국 2500가구 2875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유아의 사교육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유아의 사교육의 참여율이 99.8%로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가구 중 91.3%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정규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이와 별개의 사교육을 이용하는 가구가 전체의 99.8%로 조사되었다. 유치원의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20%, 보육시설의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경우는 24.5%, 유아가 학원에 다니는 가구는 21%, 학습지 및 방문과외 등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가구는 58.5%, 도서비, 장난감, 교재교구 등 기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71.3%로 유아교육기관 안과 밖의 과외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표1 참고).

표1. 교육 서비스의 종류 및 가구별 평균 비용

유형		종류	가구별 참여율과 비용	
			참여율	비용
유아교육기관 내 사교육	유치원	-유치원	45.5%	33만원
		-특별활동	20%	6만원
	보육시설	-보육시설(어린이집)	48.5%	29만5천원
		-특별활동	24.5%	6만5천원
유아교육기관 밖 과외사교육	학원	-영어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원(놀이학교, 감성놀이학교), 예체능학원(음악, 미술, 체육 등), 보습학원(학습 위주)	21.0%	12만2천원
	개별교육	-문화,주민센터 교육: 문화센터, 동사무소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학습지(예: 교원, 구몬, 대교, 웅진, 한솔 등) -방문과외: 학습을 위주로 하는 과외 및 방문 예체능 과외 -교구교육(예: 은물, 가베, 오르다 등) -기타	58.5%	7만4천원
	기타교육비	-도서(대여 포함) -장난감(대여 포함) -교재교구(테이프, DVD 등) -문화생활(음악회, 미술전시회, 공연, 체험학습 등) -기타	71.3%	8만5천원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20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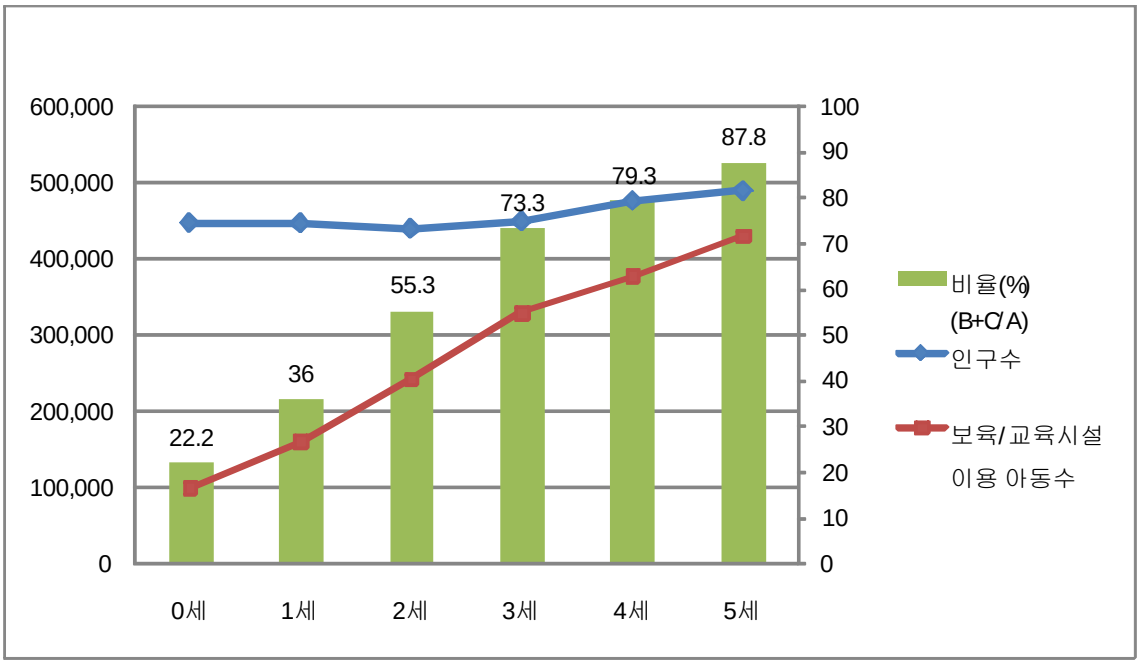
유아 사교육 중에서도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특별활동에 대한 문제의식은 부족하다. 특별활동은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에서 이루어

지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시설 내 특별활동은 영유아 발달에 맞게 운영되도록 짜인 표준보육과정과 유아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정부에서 최근 어린이집 특별활동 단속에 나선 이유도 그래서다. 아동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성인주도의 주입식 학습이 영유아의 정서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고, 보육비 외의 추가 부담을 시켜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적정관리에 나섰다(보건복지부, 2011.3.11).

2008년 현재 전국 유아 중 만3세 44만8천명 중 73.3%, 만4세 47만5천명 중 79.3%, 만5세 48만9천명 중 87.8%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만3~5세 유아의 80% 정도가 보육/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아동은 41.5%인 반면, 58.5%는 1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조사되고 있다(그림2 참고).

앞으로 정부의 보육비 지원이 늘면서 여성의 일 유무와 무관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늘 전망이다.

그림2.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아동 현황(2009년)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개발센터,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2009.11.

하지만 보육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은 선택이 자유롭지 않은 특성이 있다. 늦은 시간까지 보육시설에서 지내는 종일반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과정

일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부담이나 다른 이유로 특별활동을 빠지더라도 과연 정규과정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심지어 유아뿐 아니라 영아(만0~2세)들도 1-2개의 특별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육시설이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특별활동을 관리하면서, 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고, 참여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정규수업을 운영하고, 영아의 특별활동을 단계별로 금지하는 등의 항목을 넣긴 했지만, 실효성을 떨어지는 단속이다. 유치원은 그동안 특별활동을 금지해왔지만, 사교육비 부담 등의 현실적인 이유에서 정부가 오히려 특별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표준보육과정과 유아교육과정이 전문가들의 고심 끝에 완성되어 보급되었지만, 특별활동은 성행하고 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가 늘어 현재 종류만 100여개가 넘고, 한 아이가 참여하는 특별활동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표2. 보육시설과 유치원 운영주체별 특별활동 실시 및 종류 수(단위: %(개소))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1개	계	2004년조사 '없음' 비율
보육시설	국·공립	**35.5**	12.1	7.8	21.5	8.9	3.7	0.5	-	-	-	-	100	**42.5**
	사회복지법인	**34.2**	6.2	8.8	16.2	6	3.4	2.6	-	2.6	-	-	100	**52.2**
	기타법인	**52.8**	9.4	18.9	7.5	7.5	1.9	1.9	-	-	-	-	100	**44.9**
	민간	**36.2**	7.5	6.6	13.6	8.9	3.7	0.9	1.4	0.6	0.5	0.1	100	**55.3**
	가정	**60.9**	1.7	2.5	9.4	2.3	0.8	1.6	0.8	-	-	-	100	**75**
	직장	**48.1**	3.7	22.2	14.8	-	7.4	-	-	3.7	-	-	100	**60**
	부모협동	**-**	-	-	-	-	-	-	-	-	-	-	100	**-**
유치원	국·공립	**71.9**	10.3	8.9	1.4	0.7	1.4	0.7	0.7	-	4.1	-	100	**78.9**
	사립	**35.6**	23.4	19.3	12.4	4.5	1.5	1.5	0.4	1.1	0.2	-	100	**51.5**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개발센터,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2009.11.

보육시설의 정규과정과 특별활동이 뒤섞여 시행되어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받게 된다. 시설은 ‘부모의 요구’에 의해 특별활동 가짓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보육시설이 원아 모집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 2009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별활동 미시행 비율은 2004년에 비해 확연히 줄었다. 보육시설은 평균 특별활동 3-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10여개에 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표2 참고). 특별활동이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증대시키고, 유아의 재능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긍정적인 기대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단편적인 지식과 기능의 획득에 머물 뿐 아니라 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확장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부정적인 분석도 제기된다(최광희 외, 2006.2).

유아교육기관 내 특별활동은 또 하나의 사교육으로 볼 수밖에 없다. 취학 전 아동의 교육이 전적으로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취학전 교육의 출발점에서 계층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사교육을 받고 있는 만5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특별활동은 사회계층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층일수록 특별활동의 수가 많고, 교육비 투자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별활동에 거는 기대는 '정규수업과 연계', '초등학교 학습준비에 도움'을 위해 특별활동을 요구하는 경향이 컸다. 결국 유아가 배우는 특별활동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그 가짓수와 교육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열린유아교육, 2007.12).

정작 유아교사들은 아이들의 특별활동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특별활동을 수행하는 전공교사들이 유아의 발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교육적 괴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활동 교사들은 관련 전공자이지, 유아교육 전공자는 아니다. 그렇다고 개별 아동의 흥미나 발달 수준, 소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수업을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개별 아이들이 보는 특별활동에 대한 효과는 다를 수 있다. 사실상 특별활동은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과 상업성이 맞물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을 저해하고, 1대 20-3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활동 효과 역시 검증되지 않아 경제적 낭비만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은 계속되고 있다.

5. 지나친 조기교육과 맞닿은 유아 사교육, 부모 탓만?

득보다 실이 많아 보이는 유아 사교육, 부모들은 왜 빠져나올 수 없나? 유아를 포함한 초중고생이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 '정부의 입시정책'(38.0%), '학교교육 부실'(22.9%) 등을 밝혀, 공교육 관련이 60.9%에 달한다(현대경제연구원, 2010). 대입 중심의 학교 교육과 공교육의 불만이 뒤섞여 과도한 사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력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면서 유아의 선행학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모들이 조기교육에 빠져든 이유는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글과 수학의 기초는 이해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서다. 다른 아이들 틈에서 뒤쳐지지 않고 수업을 따라가기 원하고, 주눅 들지 않고 자신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사교육으로 아이들이 받을 스트레스보다 남들보다 못해 느

끼는 자괴감을 부모들은 더 걱정하는 셈이다.

심지어 아이들의 하루 일과가 학습 위주로 짜여있다. 유아교육기관 귀가 후 유아의 일가를 분석한 결과, 아이들은 그 외 대부분의 시간을 조기교육에 할애하고 있었다. 유아가 가장 귀가 후 TV와 비디오 시청, 컴퓨터 활동이 가장 높았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놀이보다는 주로 혼자놀이를 하며, 실외놀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김희정, 2010.6).

특히 영어 조기교육은 한 해 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영어 유치원의 난립을 부추기고 있다. 영어 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닌 어학원일 뿐이다. 하지만 한 달 족히 100여만 원이 넘는 영어 유치원은 사립 초등학교를 거쳐 국제중, 자율형 사립고나 외고를 거쳐 명문대로 진입하는 유아기의 필수 코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고액 사교육을 선두하고 있다(<프레시안> 2010.08.27) '외국어는 어릴 때 가르칠수록 좋다', '아니다, 너무 어릴 때 가르치면 모국어도 안되고 외국어도 잘못한다'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에서도 조기교육 열풍은 식지 않고 있다.

조기교육열에 대한 여러 개념들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아이들의 잠재적인 재능을 미리 발견한다는 차원보다는 학벌주의와 연관지어 "한국인들의 교육욕구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정상 수준을 넘어선 학력 및 학벌쟁취 현상"으로 보는 분석이 정확해 보인다(한지혜, 2004).

결과적으로,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불안과 관심이 조기교육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부모의 인식이 그르다고 탓할 일만은 아니다.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었지만, '소신껏' 자녀교육을 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사교육에 의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유아기부터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탓할 일이다. 대다수 유아들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도 부모의 요구에서든, 시설의 생존 경쟁을 위해서든 특별활동을 늘려가고 있다.

6. 득보다 실 많은 유아 사교육, 해법은?

유아 사교육은 남보다 먼저 시작하는 조기교육의 개념을 벗어나, 남들 다 하는데 우리 아이만 안할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에 놓여있다.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유아의 조기교육은 스스로의 흥미와 재미와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어 문제다. 성인 주도

의 전달방법이나 학습 위주의 사교육은 유아의 발달에 맞지 않다. 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더라도, 아이들의 자유로운 탐색과 호기심을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사교육의 효과는 과장된 측면이 크다. 초등학생일 경우 사교육 효과는 크지만, 중고등학교로 올라갈 경우 사교육보다는 학업에 대한 태도나 적성이 성적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11.1).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에 형성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생활태도나,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유아 인성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은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 정서인식 및 표현, 정서조절, 감정이입 등 학습과 관련한 사회적 능력도 높게 나오고 있다(김영옥 외, 2009.10).

부모들이 빠져든 조기교육 열풍은 줄세우는 대입 제도 - 불안감 부추기는 마케팅 - 부실한 공교육 - 경쟁 사회가 만든 합작품이 아닐 수 없다. 유아기에 시작되는 사교육이 장기화되면서 어린 나이부터 입시 경쟁과 스펙 쌓기의 트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크다. 마음껏 뛰어놀면서 자유롭게 자신만의 재미를 찾아야할 아이들이 똑같은 학습지를 풀고 있고, 주입식 영어 공부에 매달려야 하는 모습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광경이다. 학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유아들이 받을 스트레스, 정규유아교육의 파행적인 운영, 자유활동의 기회 박탈, 사교육비 증가와 가계 부담 가중, 사회 계층간 갈등 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다.

이제는 태어나면 사교육 기관에 등록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다. 태어나면서 사교육을 가장 먼저 접하기 때문일 수 있다. 유아의 조기교육과 그로 인한 사교육의 난립은 경쟁교육의 논리에 의해 결과 중심의 단순 암기와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게 된다(최광희 외, 2006.2). 유아기가 주입식 교육으로 우울하다면, 아이들의 미래 역시 밝을 수 없다. 왜 교육만큼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해지는 '소신껏' 교육철학이 통하지 않는 것일까? 이어지는 보고서에서 유아 사교육과 관련한 제안과 외국 사례를 통해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김영옥, 장명림, 유희정, “유아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2009.10.
김희정, “유아교육기관 귀가 후 유아의 일과 실태 분석”, 2010.6.
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개발센터,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2009.11.
_____, "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 시행" 2011.3.11.
열린유아교육, “유아교육기관의 특별활동에 대한 사회계층별 부모 인식”, 2007.12.
최광희, 이연승,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특별활동교육의 실태 및 바람직한 방향”, 2006.2.
통계청, “2010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2011.2.15.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비 조사 방법 개선 연구”, 2007.12.
_____,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2010.12.
_____, “왜 사교육보다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한가?, 2011.1.
한지혜,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조기교육열”, 2004.3.
현대경제연구원, “사교육 시장의 현황과 대책”, 2010.5.11.
<국민일보> “사교육 많이 받으면 우울증 위험 커진다” , 2011.4.4.
<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 한국 50년 후 모습은”, 2011.3.30.
<프레시안> “‘영어 유치원’에 1400만원..‘무주공산’ 유아 사교육” 2010.08.27.